

보도자료 2013. 10. 25.	 <div>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div>	
	담당부서	국제심의관실
	담당자	국제심의관 진상훈 (☎3480-1969)
	공보관실 ☎ 3480-1451	

양승태 대법원장,

제15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가 및 터키 순방 위해 26일 출국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 10. 28.[월]부터 10. 30.[수]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가하고, 10. 31.[목]부터 11. 6.[수]까지 터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10. 26.[토] 출국할 예정입니다
- 먼저 제15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발전상을 알리고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참고로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양대법원장은 취임 후 처음 참가하는 것임]
- 이어지는 터키 방문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법한류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참고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터키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임]

-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 10. 28.(월)부터 10. 30.(수)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가하고, 10. 31.(목)부터 11. 6.(수)까지 터키를 공식 방문하기 위하여 10. 26.(토) 출국할 예정임
-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법원장들이 모여 각 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회의임
- 이 회의는 1985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며,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제14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 양승태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이번에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가함
- 이번 회의에서는 “법관윤리의 강화”, “사법부 독립의 확보 방안”, “사법부의 투명성 강화 방안”, “국제거래 발전을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 등 주제별 토론이 예정되어 있음.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 주제별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 참가한 주요 국가 대법원장들과 사이에 향후 사법교류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칠 예정임
- 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알리 알칸(Ali ALKAN) 터키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10. 31.(목)부터 11. 6.(수)까지 터키를 공식 방문할 예정임.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서의 최초의 터키 공식 방문임
- 양승태 대법원장은 11. 4.(월) 오전에 터키 대법원을 방문하여 알리 알칸 대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사법교류 증진과 사법정보화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11. 4.(월) 오후에는 터키 최고행정법원을 방문하여 제린 귄골(Zerrin GÜNGÖR) 최고행정법원장과의 사이에 양국

행정재판제도의 현황과 개혁방안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며, 11. 5.(화) 오전에는 터키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하심 킬리치(Haşim KILIÇ) 헌법재판소장과의 사이에 양국의 헌법재판 제도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11. 4.(월) 오후에는 앙카라에 있는 한국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터키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할 예정임

-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참가를 통해 우리 사법부의 발전상을 알리고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펼치며, 터키 방문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터키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사법한류의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음 [끝]